

“운동장 좁아 전교생 운동회는 못해요”

오늘 어린이날

광주 신설 초등학교들 ‘곤욕’
학년별로 분산·주차장 이용
학생 체력 저하·안전사고 우려

광주시 광산구 산정초등학교 운동장은 2주제 만가기가 필적이 있다. 지난해 25일부터 시작된 학년별 운동회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오는 9일에는 마지막으로 유치원 운동회가 열린다.

산정초는 올해 학년별로 운동회 날짜를 잡았다. 운동장이 좁아서 전체 학년이 한꺼번에 운동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3개 학년씩 이틀에 걸쳐 강당과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열었지만 공간이 비좁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다. 산정초 관계자는 “운동장이 비좁아 전체 학생이 함께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북구 신원동 신원초등학교는 4일 학교 운동장과 인근 강변잔디공원 등 2곳에서 운동회를 분산 개최했다. 분산 개최를 했어도 운동장이 좁아 주차장 등 곳곳에서 단체줄넘기를 해야 했다.

광산구 흑석동 새별초등학교도 학급수가 많은 1~3학년은 학년별로, 4~6학년은 단계를 운동회를 나누어서 열기로 했다. 광산구 수완동 수완초는 9~10일 이틀에 걸쳐 3개 학년씩 운동회를 연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운동장이 좁아지고 있다. 최근 택지개발 등으로 신설된 일부 초등학교는 협소한 운동장 면적 때문에 전체 학년이 모여 운동회를 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비좁은 운동장은 결국 학생 체력 저하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개교한 신원·성덕·선운·은빛·효천·새별·건국초 등 7개 학교의 평균 운동장 면적은 2144㎡(약 649평)에 불과하다.

각급 학교의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은 신원초 1.96㎡(학생 수 942명, 운동장 1850㎡), 성덕초 2.05㎡(908, 1952), 건국초 2.17㎡(952, 2062), 새별초 2.91㎡(876, 2550), 은빛초 2.96㎡(758, 2246) 등이다.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이 1평(3.3㎡)도



공터에서 단체줄넘기 신원택지지구인 광주 첨단2지구에 있는 신원초등학교는 4일 좁은 운동장 때문에 운동회를 학교 운동장과 인근 강변잔디공원에서 분산 개최했다. 학생들이 운동장이 아닌 학교 건물 뒤편 공터에서 단체줄넘기를 하고 있다.

■ 신설초등학교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 (단위:㎡)

학교명	운동장면적	학생수	1인당 면적
신원	1850	942	1.96
성덕	1952	908	2.15
선운	2742	664	4.13
은빛	2246	758	2.96
효천	1611	365	4.41
새별	2550	876	2.91
건국	2062	952	2.17
수완	2708	1772	1.53
큰별	2666	1402	1.90
산정	2639	1342	1.97

되지 않는다. 학생 과밀화 현상을 겪고 있는 수완초(1.53㎡), 큰별초(1.9㎡), 산정초(1.97㎡)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반면 송정중앙초의 운동장 면적은 6500

■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 비교



㎡(1인당 면적 15.8㎡), 일곡초 4480㎡(5.52㎡), 운암초 4460㎡(6.2㎡), 계림초 4080㎡(7.13㎡) 등으로 개교한 지 오래된 학교는 상대적으로 넓은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택지개발 사업자들이 학교를 신축하면서 최소 면적의 운동장만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운동장 규모를 늘리면 부지 매입비 등이 크게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아파트 건립 부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600명까지는 3000㎡의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601~1800명은 기본 1800㎡의 면적에 학생 1인당 2㎡를 추가로 확보하게 돼 있다. 이마저도 교내에 체육관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을 만들 경우 비표면적의 2배를 운동장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부대시설 증가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학교 다목적교실과 강당, 급식시설, 주차장 등 각종 부대시설을 늘리면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은 학생과 주민 모두에게 중요한 공간”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더민주 원내대표 ‘범주류’ 우상호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진노(진노무현)·진문(진문재인) 그룹에 우호적인 범주류의 3선(20대 국회 기준) 우상호(54·서울 서대문갑·사진)의원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당내 대표적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0표(후보 1표) 가운데 63표를 득표, 56표를 얻은 우원식 의원을 7표 차

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앞서 1차 투표(121명 참석)에서 우원식의원이 40표, 우상호 의원은 36표를 각각 얻었으나 재적 과반(62명) 득표자가 없어 두 사람을 상대로 결선투표가 실시됐으며, 결선에서 역전이 연출됐다.

우 신임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내 1당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임무를 맡는 동시에 김종민 대표와 ‘투톱’으로서 차기 정당대회를 관리하게 된다.



우 신임 원내대표는 198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전국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부의장을 하면서 학생운동권의 선봉에 섰으며, 2000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로 제도권 정치에 입문해 17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19~20대 연달아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올랐으며, 8년의 대변인을 맡는 등 ‘당의 입’으로 불려왔다.

/박지경기자 jkpark@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 박람회 오늘 나주 전남농업기술원서 개막

29일까지 7개 주제 전시

전남 친환경디자인의 미래를 제시할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 박람회’가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나주시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 일대에서 열린다.

“세상을 바꿀 새로운 삶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친환경 디자인의 미래와 전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채로운 공연과 주제전시, 체험프로그램이 7개 전시관과 야외잔디마당에서 펼쳐진다.

7개의 주제 전시관 등에선 ‘퍼핏가든’, ‘닌버벌 공언’(언어의 사용을 배제한 퍼포먼스), ‘에어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매일 두 차례씩 공연이 열리는 퍼핏가든 뮤지컬 ‘하늘정원’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쌍방향 뮤지컬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친환경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종이발자국’(5관)과 ‘에코파이브 체럼타운’(5관) 등도 마련된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놀이를

통해 예술적 감성을 기르는 체험 프로그램인 종이발자국 전시관에서 아이들이 직접 재생종이를 만들어보는 체험과 평면 종이와 화려한 입체로 부활하는 종이 퍼피체럼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에코파이브 체럼타운에선 티셔츠 염색·나무조립 화분·목공예·공충표본 만들기·공충로봇만들기·드론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 생태모방 과학영상도 상영된다. 키즈산업관(3관)에선 어린이들의 대령으로 불리는 ‘뽀로로’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어떤 식으로 효과(경제·산업적)를 이끌어내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유영관 사무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다른 박람회와 차별화된 특별한 재미를 선사하게 될 것”이라며 “창의력·표현력·상상력·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친환경 놀이 체험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감성충전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golee@kwangju.co.kr

미국 대선 힐러리·트럼프 맞붙는다

민주·공화 사실상 후보 확정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오는 11월 대선 본선에서 맞붙는다.

(관련기사 2면)

트럼프가 3일(현지시간) 중동부 인디애나 주 경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일주일 전 5개 주 경선의 대승으로 민주당 대선후보로 자리매김한 클린턴 전 장관에 이어 사실상 당 대선후보의 지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당의 대선주자”라고 공식 선언했다.

오는 7월 각 당의 전당대회를 거쳐 향후 본격화할 두 후보 간 맞대결은 ‘여성과 남성’, ‘워싱턴 주류와 아웃사이드’, ‘첫 부부 대통령 도전과 부동산 재벌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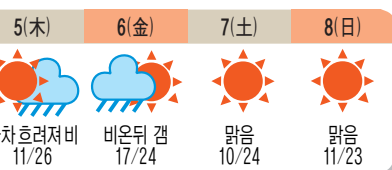


민주당 힐러리 공화당 트럼프

신 첫 대통령 도전’, ‘대권 재수 후보 간 대결’이라는 진기록을 써나가는 세기의 승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던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발언과 공약을 내걸고 대선전에 뛰어들어 트럼프의 행보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연합뉴스

■ 어린이날 연휴 날씨



오늘 김국영 vs 자동차 대결 ▶2면

파독 간호사 - 장흥 정유선씨 ▶18면

6일 임시공휴일 신문 쉽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디자인을 밝히다

The new generation CLS-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LS 400 2.996cc, 1.809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0.0km/ℓ(도시연비 8.8km/ℓ, 고속도로연비 11.9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77g/km *CLS 63 AMG 5.461cc, 1.93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6km/ℓ(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9.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38g/km *CLS 63 AMG 4MATIC 5.461cc, 2.01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1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6g/km *CLS 63 AMG S 4MATIC 5.461cc, 1.995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8.6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5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